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학산업 구조조정은 필연!"

화학산업 경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2000년 하반기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호황으로 반전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 속단은 어렵지만 상승세로 반전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는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석유화학 경기사이클이 일정치 않고 한국을 비롯한 수출 주도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입 주도국의 신경전 또한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화학제품 시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침체국면을 벗어나 호조를 보일만한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중국의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국내수요 및 수입수요 증가가 유일한 희망이나 미국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플래스틱 가공제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중국기업들이 폴리머 수입을 확대할 리 만무하고, 오히려 미국산 화학제품이 아시아지역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 지경이다.

여기에 2000년 시작된 섬유 · 철강 · 자동차 등 한국경제 주력업종의 경기침체가 2001년 더욱 뚜렷해지고 업종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수요 또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0년말 주요 업종별 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조선을 비롯 전자, 일반기계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하강세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금융경색, 국내수요 침체, 미국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산업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수요는 전자 16.4%, 일반기계 10.9% 증가 등으로 2000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는 3.5%, 철강은 3.4% 감소하는 등 경기하강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도 전자 20.6%, 조선 18.1% 등으로 높은 신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경제 성장둔화,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 불안과 통상압력 가중 등으로 섬유 3.3%, 정유 1.9%, 자동차 1.2%, 철강 0.8% 감소 등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도 전자 11.8%, 일반기계 9.9% 증가 등으로 일부는 2001년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가 2000년 34.4% 증가에서 2001년에는 10.0% 증가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구조조정 부진에 따른 금융경색, 채산성 악화와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섬유 2.9%, 정유 0.7% 신장에 그치고 자동차 1.0%, 철강 2.2% 감소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화학산업은 국내수요 침체에 수출둔화라는 2가지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의 전방산업인 섬유, 자동차 생산이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고 건축경기는 극도의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또한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악전고투가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화학제품 수급밸런스 붕괴현상이 지속되고 가격하락세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화학기업들이 2000년 하반기의 적자에 이어 2001년에도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화학산업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 위기론이 팽배할 수도 있다.

즉, 한국 화학산업 특히 석유화학은 평균적으로 150-200%에 이르는 극심한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고, 5-8개 메이커가 난립하고 있는 과당경쟁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을 가질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오라기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다른 나라 화학공장의 폭발사고를 기대하는 몰염치가 일부에 존재하나 결코 반길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는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는 희망가로 끝나고 곧이어 다가오는 종막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와 「코스트다운」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이 뼈를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재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의를다는 화학산업 관계자는아무도없을것이다.

<화학저널 2001/1/8>